

교회안의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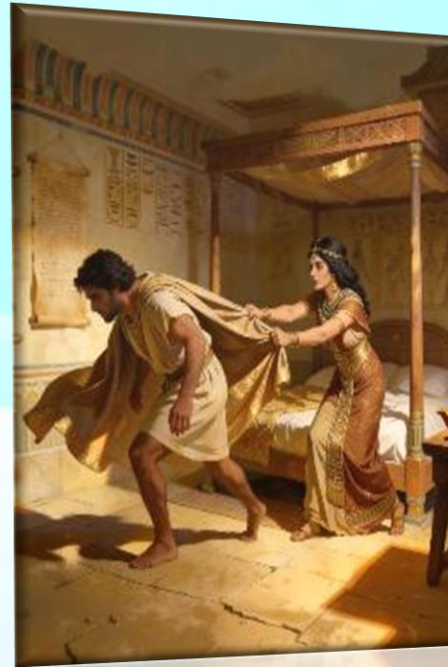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 20)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 즉 성적 죄악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성적 범죄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와 사기 사건들과 얽혀 있었고, 결국 민사법원에 회부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이 죄를 지적했고, 다시는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교회안의 죄

죄를 인지하고도
받아들임

죄의 뿌리를 뽑음

교회안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교회 안에 죄를 물리칠 것인가?

성령님의 전

정당한(합법적인)
성



교회안의 죄

죄를 인지하고도 받아들이

“그러고도 여러분은 잘난 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고전 5:2)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고전 5:1).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행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교인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는커녕, 그런 죄악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한 교회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고전 5:2).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양심도 근친상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에서도 근친상간을 금하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레 18:8).

근친상간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고전 5:6)? 당사자들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인들에게도 관대한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까요?

죄의 뿌리를 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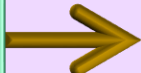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고전 5:13)

이 근친상간의 죄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고전 5:1)이었으므로 교회의 떨어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당사자들의 범죄 여부를
판단함 (고전 5:3)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교회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마십시오(고전 5:11).



당사자들이 자신의 죄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사탄의
멍에’를 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줘 교회에서 쫓아 냄 (고전.
5:2, 5, 13)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처벌되는
과정은 반드시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도와주려면(고전 5:5),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교회안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고전 6:1)



바울은 교회 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알려준 후에, 올바른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교인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소송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고전 6:1-6).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 분쟁의 뿌리를 파고듭니다.

➔ 먼저,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고전 6:7a), 당연히 교인들끼리 부당한 일을 하거나 서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고전 6:8).

➔ 둘째로, 교인들은 서로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고전 6:7).

➔ 셋째, 성도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들 사이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중재해야 합니다(고전 6:2).

로마서 13:1-5에 나오는 형사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면, 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무는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첫사랑의 열정을 차갑게 식히는 나만의 결점과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마음입니까? 무조건 첫째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강렬하게 끓어오르는 정욕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 색욕과 방탕함을 즐길 자유를 주셨다고 주장한 니콜라당의 죄입니까? 지혜와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삶과 인격은 자기 말과 정반대로 부패한 채, 큰 빛과 기회와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 강해지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 단호히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엘렌 화잇 (너희가 권능을 받고, 12월 18일)

어떻게 교회
안에 죄를
물리칠 것인가?



성령님의 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고전 6:19)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다룬 후, 바울은 다시 본래의 주제인 교회
내의 성적 타락으로 돌아옵니다. 왜 교회 안에 성적 죄가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고전 6:11), 이는 그들의 삶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자기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전
6:12-13)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나
간음하는 여인과 결합하는 데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고전 6:15-18).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고전 6:19).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귀한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고전 6:20).



정당한(합법적인) 성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고전 7:2)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통해 성적 타락에 대한 해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고전 7:1).

요약하자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합법적인 성생활을 누리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거부하면 간음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고전 7:3-5).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독신자들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전 7:6-8, 32-34).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는 독신자들은 성적 범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고전 7:9).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의 관심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께
쏠리도록 하십시오...그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를 말해 주십시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을
믿도록 격려하십시오...

죄인이 회개할 때 교회는 감사하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불신의
어둠에서 나와 믿음과 의로움의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떨리는 손을
이끌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는 하늘에서 용서받은 것으로
확증됩니다.

엘렌 화잇 (시대의 소망. 806)